



달성군 '달헌봉사단' 발대식

달성군 '달헌봉사단' 발대식이 지난달 30일(수) 달성군 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남명숙 달헌봉사단 회장, 박승국 달성군보훈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보훈단체 회원들과 봉사단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남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보훈복지 향상을 돕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 보훈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봉사단은 말로 하는 봉사가 아닌 실천하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명숙 달헌봉사단 회장은 "달헌봉사단은 달성군의 '달'과 보훈단체의 '헌'을 따서 보훈단체 봉사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늘 발대식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좋은 취지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오늘 무사히 발대식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말로 하는 봉사보다는 발로 뛰는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달헌봉사단은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존중 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훈가족들

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달성군 관내 10여개 보훈단체 행사시 안내 및 지원, 독거 보훈 어르신 집수리, 김장김치 지원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달헌봉사단 발대식에서는 남산동에 소재한 용천사 청호 스님이 후원물품으로 백미 50포를 봉사단에 전달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보훈가족을 위해 마음을 내주신 달헌봉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달성군도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준업 객원기자



풍국주정공업(주) '사랑의 연탄 3,500장' 전달
 풍국주정공업(주) (대표이사 이한용, 김규호)는 지난달 28일(월)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연탄 3,500장(300만 원 상당)을 달서구에 기탁했다.



달서구-광주 북구, 고행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달서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광주 북구는 지난 2일(토) 두류공원에서 열린 영호남 화합 한마당 잔치에서 고행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



NH농협은행 대구본부, 우리쌀(20kg) 나눔
 NH농협은행 대구본부(본부장 전경수)는 지난 4일(월) 달성군 취약계층을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우리쌀(20kg) 600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현풍교회, 성금 300만 원 기탁
 달성군 현풍교회(담임목사 송일두)는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달 31일(목)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엄마밥상(침산점), 라면 100상자 기탁
 엄마밥상 북구 침산점(대표 허성태)에서 지난달 30일(수) 달성군 다사읍에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다.



목련산악회, 사랑의 연탄 2,000장 전달

목련산악회(회장 조천제)는 지난달 30일(수)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연탄 2,000장(170만 원 상당)을 달서구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목련산악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달서구 두류1·2동 취약계층 7세대에 전달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서구 진천동 '사계절 비타민 가득' 건강과일 나눔 사업

달서구 진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달 29일(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복지 보조금으로 봉사단체인 행복나눔공동체와 함께 주민 주도의 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제공:달서구청)